

産業發展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내용

산업발전법 시행령이 5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지난 2월 제정된 산업발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로써 '86년 이후 13년간 공업발전법에 따라 추진되어 왔던 산업정책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체제로 개편될 계획이며, 공업발전법에 의한 산업합리화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방식에 의해 추진하던 산업정책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정책은 대상업종을 과거의 제조업 중심에서 유통·물류·연구개발·광고·컨설팅 등 제조업 지원서비스산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되고, 산업의 중·장기발전비전 제시 등 시장기능과 조화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산업정책을 추진하며, 지식·기술집약적 미래 유망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산업정책 차원에서 조정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제도의 도입을 통해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민간의 국제산업협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 산업협력을 산업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 산업발전법 시행의 의미

산업발전법의 시행은 WTO체제 출범('95), OECD 가입('96), IMF 경제위기 등으로 크게 변화된 국내 산업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식·정보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산업의 지식집약화가 산업경쟁

력 및 경제성장을 좌우하게 되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지금까지의 산업정책과 산업발전법에 따라 앞으로 추진될 산업정책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60~'85년 : 7개 개별공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시장진입, 사업의 확장, 생산 등 기업활동의 광범위한 분야에 정부가 직접 간여하는 전통적인 산업정책 추진

※7개 공업육성법 : 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철강공업육성법, 비철금속 제련사업법, 석유화학공업 육성법, 섬유공업 근대화촉진법

○'86~'98년 : 공업발전법에 따라 유망유치산업·구조불황산업 등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업종에 정부가 개입하고('90년대 초까지) 기술개발, 생산성향상 등 기능별 지원시책을 추진

○'99년 이후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지식·정보중심의 미래유망 신산업 육성,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국제산업협력 강화 등 21세기 대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

2. 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산업정책의 변화내용

▶산업정책 대상업종의 확대

종전에는 전통적인 제조업(공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기술의 복합화·융합화에 따라 업종간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산업의 서비스화가 급진전되는

추세에 대응하여 앞으로는 제조업 이외에도 물류, 유통, 연구개발, 광고, 경영컨설팅, 영상·방송 등 서비스 산업을 산업정책의 대상에 포함하여 제조업과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산업발전비전 제시를 통한 민간자율의 산업발전 유도

공업발전법도 공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제시토록 하였으나, 10년 단위로 작성됨으로써 급변하는 산업여건에 대응이 미흡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업발전법은 5년 단위로 산업의 발전전망을 제시토록 하여 민간의 합리적인 투자와 자율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발전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는 50개 업종에 대한 발전비전 수립작업을 진행중이며 8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지식·기술집약적 미래 유망신산업 육성시책 추진

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21세기 지식·정보중심의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성장원천이 될 수 있는 미래 유망신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망신산업의 부가가치 및 고용창출 전망과 발전전망 수립
- 유망신산업의 창출에 필요한 기술·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공급방안 마련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지역간 과잉·중복투자를 예방하고 낙후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역별 산업진흥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지사가 산자부 지침에 따라 관할 지역의 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산자부에 제출하고 산자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조정협의회(의장 : 산자부 차관)에서 지역별 산업진흥계획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설립되는 중소기업 및 공장과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한 구조조정의 촉진

산업발전법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장기능에 의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기업을 인수·정상화·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민간기업으로서, 활성화될 경우에는 부실기업의 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산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최소화(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회사에 대해 사채발행한도 특례(자본금이 10배), 지주회사 특례(부채비율 및 자회사지분율 제한 제외) 적용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회사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등 각종 세제지원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양질의 투자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을 허용할 방침인데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전문회사가 다른 출자자들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도록 하되, 납입한 출자자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M&A 업계, 대규모기업집단, 외국인투자자 등 다양한 민간기관이 전문회사 설립을 준비중에 있으며, 산자부는 5월 17일부터 공식적으로 등록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국제산업협력의 체계적인 추진

산업발전법에서 민간의 국제산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산업정책 차원에서 민간의 원활한 국제산업협력 활동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이 산업협력 협의체에서 합의한 외국과의 민간분야 협력사업, 민간이 구성한 외국과의 경제협력기구에서 합의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관련정보의 수집·제공 등 협력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발전심의회의 운영

산업정책의 종합적인 심의기구로서 산업발전 심의회

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발전심의회는 중전의 공업발전심의회와는 달리 심의의 전문성·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은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심의회 산하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산업정책 부문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99년 4월 전력소비 동향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

지난 4월의 전력소비는 171억 천만kWh로서 전년동월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6.7%), 2월(4.0%), 3월(7.7%)보다도 높게 증가하고, 4개월째 증가세를 시현(1~4월 누계 6.8%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용을 제외하고 쏠 업종에서 전년동월 대비 10% 이상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력소비 동향

최근의 전력소비 형태는 지난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4월에는 금년 들어 가장 높게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인 '97년 4월보다도 5.2% 증가하였는데 이는 '98년의 상대적인 감소영향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한 내수경기 활성화로 산업체 및 민간부문 등에서 소비가 살아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력소비 증가율 추이

'97년	'98년	'99. 1	'99. 2	'99. 3	'99. 4	'99. 1~4
10.0%	△3.6%	6.7%	4.0%	7.7%	8.9%	6.8%

▶용도별(種別) 추이

전체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산업용은 산업체 가동

을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7.4% 증가(1~4월 누계 5.0%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기계장비, 조립금속에서 대폭, 섬유, 화학제품, 조선, 철강 등은 소폭 증가한 반면, 석유정제 및 반도체에서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 '98년 상대적인 감소 및 가동률 영향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24.5%)
- 기계장비 : 기계장비(23.1%) 및 조립금속(20.2%) 등 20% 이상 큰 폭으로 증가
- 기타 : 섬유(8.0%), 화학제품(7.1%), 조선(5.8%), 철강(5.0%), 요업(5.0%) 등 소폭 증가
- 반도체 : 현대전자의 자가 열병합발전(29만kW) 사용으로 인하여 감소(△4.6%)

또한 주택용은 심야기기 보급영향으로 전년 대비 11.9%, 누계로는 9.2%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인 일만용 10.2%, 농사용도 시설재배 영농에서 전기사용으로 전년보다 19.3% 증가하였다.■

**ABB와 Alsthom,
발전사업 통합**

**신 회사 「ABB Alsthom
Power」 설립**

스위스의 대 중전기 메이커 ABB (아세아 브라운 보베리)와 프랑스의 Alsthom은 양사의 발전사업을 통합하고 반반 출자하여 새로운 회사 「ABB 알스톰 파워」를 설립한다고 발표하였다. 신(新)회사는 '98년도 예상매상고를 약 110억불로 보고 있으며 본사를 벨기에의 브뤼셀에 두고 사장겸 최고경영책임자(CEO)에는 알스톰의 크로드 더몬 CEO대리가 취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회사는 사업효율과 생산성 개선, 스케일 메리트 등에 의해 3~4년 이내에 연간 4억 5천만불 정도의 합병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 회사는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약 5만 4천명의 종업원을 고용할 계획이며 벨기에에서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립시기는 아직 미정인 상태이다. 새 회사의 사업에는 ABB의 발전부문과 알스톰의 에너지부문사업이 원칙적으로 모두 포함되지만 ABB의 원자력사업과 알스톰이 미국 General Electric(GE)사에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GE 베이스의 대형가스터빈(2만kW 이상)사업은 제외된다.

양사의 수뇌부는, 변화가 격심한 시

장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발전사업을 통합함으로써 장기적인 발전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능력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98년의 예상수치에 따르면 새 회사의 연구개발 투자는 약 7억불로 매상고의 6~7%에 이른다.

**미쓰비시電機,
미국에서 전력설비
사업에 참가**

해외수주 활로 개척

일본의 미쓰비시電機는 변전소 자동화시스템 등 미국에서 전력계통의 사업에 참가한다.

일본의 전력기기 메이커가 전력수요의 증감이나 설비의 고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송전·변전·배전 등 계통운용시스템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회사인 미쓰비시 일렉트릭 파워 프로덕츠사(MEPPI,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생산거점으로 하게 된다.

미쓰비시電機는 국내전력 각사의 설비압축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그 대응책으로 해외에서의 수주개척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시장에서는 지금까지 가스차단기 등 단위 기기를 판매하고 있었으

나, 미국전력회사를 위한 계통운용시스템의 신규수주를 추가하여 '99년도 수주는 전년도 대비 40% 증가(6300만불)라는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MEPPI는 생산능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하고 현지 본사에 인접한 공장을 매수하였다. 전력계통 안정화시스템 수주의 제1탄으로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공장용 배전시스템의 계약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일본이 최종적으로 거당하고 있는 것은 변전소 자동화시스템 등 미국전력회사로부터의 수주라고 한다.

이미 MEPPI는 탱크형 가스차단기(GCB), 가스절연개폐기(GIS) 부문에서 전력기기 시스템의 세계 최대메이커인 ABB(아세아 브라운 보베리)와 틈새어를 놓고 경쟁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는데 전력계통시스템에서도 ABB와 정면으로 경합하게 될 것 같다고 한다.

미쓰비시電機는 앞서 홍콩의 홍콩電力, 아랍의 두바이電力廳으로부터 각각 100억엔씩에 변전기기를 수주하는 등 해외시장에서 대형물건의 계약을 연이어 성사시키고 있어, 수주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일본 국내의 전력기기 메이커를 리드하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환경친화적인 발전

영국에 솔라(Solar) 빌딩

세계 최초의 「에너지 파크」 비저터 센

터로서 영국 웨일즈남부에 피라미드형 Solar Power 빌딩이 머지 않아 오픈 된다. 이는 환경친화적인 발전과 에너지 절약기술을 소개하는 마당(場)이 될 것으로 보인다.

50만폰트를 들인 이 빌딩은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과 런던의 아랍 어소시 에이트에 의한 협력사업으로 건설되는 것으로서 앞으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에너지 파크」 계획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접대하는 시설로 이용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최신의 광기전(光起電)기술이 도입되는데 이는 에너지효율이 좋은 4개 가구분의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15kW의 전기가 176매의 솔라패널에 의해서 생산되며 이 전기는 공조, 가전, 컴퓨터, 팩시밀리 등에 이용된다. 또 이 시스템은 지역의 계통에 연계되어 있어 잉여전력은 낮에 "수출"되고 부족분은 야간에 "수입"된다. 추정에 따르면 1kW의 패널로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삭감할 수 있다고 한다.

빌딩의 남측에 면한 솔라월(Solar Wall)은 태양에너지를 최대한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곡선과 각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밖에도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복층(複層)글라스, 열회수시스템, 상하(床下)의 '페블 베드'(겨울에는 미사용 열을 다음 날을 위해 저장하고 여름에는 야간의 공기를 통하게 하여 시원하게 함), 저(低)에너지광원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

중, 환경산업을 중점육성 선진국에 기술협력 기대

중국정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파괴에 위기감을 느껴 환경보호산업을 신흥산업으로서 중점 육성키로 하였다. 이는 중국의 국가발전계획위원회가 밝힌 것으로서, 시시각각 악화하는 수질오탁, 공업폐수, 배(排)가스, 쓰레기 등의 무해화(無害化) 처리설비 연구개발을 궤도에 올려,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효율을 양립시키는 신흥산업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 2000년의 세계 환경보호관련 기기 및 설비의 판매고는 1조불로 예상되는데, 중국의 환경보호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작고 제품구조가 단일(單一)하며 기술수준이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98년의 중국의 환경보호기기·설비의 생산고는 불과 311억원에 머물렀으며 또한 인구폭발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조건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관민 모두 심한 공해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해외 선진국으로부터 환경기기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2000년의 도시수처리율을 20~30%, 공업폐수처리율 84%, 도시오수 재생이용률 10%로 계획하고 있다.

10년 후에는 물부족도시의 오수재생 이용률 30~40%, 그리고 2000년의 도시생활쓰레기는 80%로까지 향상시키고 도시쓰레기 무해화처리율과 분뇨 무해화 처리율 각 50%를 들고 있다.

도시연료가스화율 80% 달성과 중국 북방지구의 집중난방 프로젝트 등의 분야에 해외산업계의 비즈니스찬스가 관심사로 되어 있다.

日 홋카이도電力
'99년도 영업
개발활동 방침
全電化 채용률 11.6%로

일본의 홋카이도電力은 '99년도 영업 개발활동지침과 목표를 결정하였다. 금년에는 전화(電化)의 주도적 역할이 동사로부터 업계로 자연스럽게 이행토록 하기 위해 '전화(電化)' 예산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설주택에서 차지하는 전체 전화채용률을 11.6%, 착공 호수는 5800호 이상으로 수치목표를 설정하였다. 전기온수기에 대해서는 채용률 16.5%, 12,600대 이상을 내걸었다. 또한 주택용 차세대 전화시스템의 개발에도 착수하여 앞으로 주택전화(住宅電化)를 가속화시킬 계획이다.

동사의 영업개발비전 「OVERCOME 21」에 나타나 있는 「2005년에 전체 전화채용률 15%, 전기온수기 채용률 20%」

확보를 겨냥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금년에도 '98년도에 이어, 전기온수기 축제(祝祭, 10~12월) 전인 9월을 「영업개발 파워업의 달」로 정하여 타열원(他熱源) 전환 캠페인 등을 실시, 사원의 영업개발에의 의식고양을 도모한다. 보다 효과적인 전화보급촉진과 애프터서비스 체제의 확립을 위해 보급촉진제도와 정기방문제도 등을 재검토함과 동시에 영업개발에 관한 매뉴얼과 참고자료의 정비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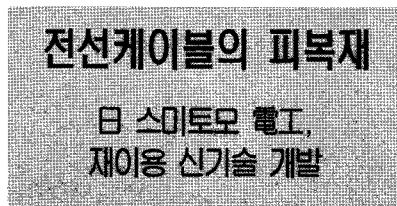
또한 작년에 착수한 집합주택을 위한 전화설비를 대어해주는 「주택전화 설비 임대제도」를 확충하여 개별주택에도 그 대상을 확대한다. 이렇게 하여 개별주택 리폼(Reform)시장에서의 타열원전환을 더욱 촉진시킨다. 작년부터 실시한 전기온수기 옥외설치 모니터결과를 바탕으로 설치공사의 표준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경주한다.

또한 앞으로의 전화(電化)시스템의 주력으로 생각되는 히트펌프를 이용한 「주택용 차세대 전화시스템」에 대하여 영업부 내에 전담팀을 설치하고 또 종합연구소와 전기, 주택메이커 등의 협력을 얻어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 빌딩공조·열공급 분야에서는 전력자유화(電力自由化)를 기초로 하는 코제너레이션 대응전략에 대한 재검토와 한냉지대용 히트펌프의 실용화 등을 지향해 나간다. 위생관리에 우수한 올(All) 전화주방(電化廚房)의 보급확대, 빙축열식 벌크쿨러 등의 낙농전화시스템

의 보급확대에도 대처한다.

한편 홋카이도電力은 지난 4월 23일 부하평준화를 더욱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요금메뉴 「피크억제형 시간대별 전등(電燈)을 通産大臣에게 제출하였다.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동계(冬季)피크시간대(오후 4시~6시)의 요금을 할증하고 주간시간대는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동계피크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력업계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강설량(降雪量)이 적은 지역을 위한 메뉴의 다양화를 기도한 「융설용(融雪用) 전력C(Hot Time 19 Eco)」와 「융설용전력D(Hot Time 22 Eco)」도 제출하였다. 신메뉴는 민생용 수용가의 성(省)에너지의식을 환기시키는 것으로,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전기요금도 절약된다. 어느 것이나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일본의 스미토모電氣工業은 사용이 완료된 전선케이블에서 회수되는 PVC(염화비닐)와 PE(폴리에틸렌)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된 채로 케이블 피복재로 재이용하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 전선메이커로는 처음이다. 전선케이블의 리사이클 과정에서 필요했던 PVC와 PE의 분리공

정이 생략되어 리사이클률 향상과 리사이클 코스트의 저감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신기술을 사용하여 전력회사와 공동으로 전선 리사이클시스템의 구축에 나선다.

PVC와 PE 분리 불필요

대표적인 전선케이블은 도체로는 동, 절연체로는 PE, 피복재로는 PVC가 사용되고 있다. 신기술은 사용을 필한 PVC와 PE를 혼합한 상태로 분쇄·세정하여 특수한 상용화제(相溶化劑)를 수% 첨가. 용융 혼합하여 폴리머알로이(分子레벨에서 共重合體)화 한다. 폴리머 알로이화한 PVC/PE 혼합체는 안정된 성분으로 케이블 피복재로서 충분히 재이용할 수 있다.

통상 PVC와 PE는 화학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혼합되지 않으나 상용화제는 상반하는 물과 기름을 달라붙게 할 때의 비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업계의 시험연구기관인 電線總合技術센터에 의하면 동은 거의 100% 재이용되고 있는데 대하여 PE는 17.6%, PVC는 30.9%로 재이용률은 分別코스트가 한계점에 이르러 연간 6만여톤이 일본에서 폐기처분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동사에서는 전력회사와 공동으로 신기술에 의한 전선 리사이클 시스템을 구축하여 리사이클률의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재료단계에서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에코케이블'의 상품화 등을 추진하여 환경에 친근한 기업 만들기에 힘쓸 것으로 보고 있다. ■